

# 한국의 책, 전지구인과 교감하는 날을 꿈꾼다

## 지구 최대 '활자들의 잔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문학과 우리 문화의 독자성, 변별성 알리는 계기

강석경\_ 소설가



1990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작가대회에 참가했을 때다.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60여 명의 작가가 참가했는데 일본에선 뒤에 노벨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 쓰시마 유코, 평론가 가라타니 고진 등이 참가했다. 같은 아시아며 어쩔 수 없이 익숙한 나라라 나는 일본 팀들과 이내 친해졌다. 회의에서 만난 쓰시마 유코가 다자이 오사무의 딸이라는 것도 그때야 알게 되었다.

### 전후 세대 일본작가 다자이 오사무, 세계적 지명도 과시

우리 세대 작가라면 문청시절에 독파했던 책으로 신구문화사의 세계전후문학전집을 꼽을 것이다. 그 중 일본전후 문제 작품집에서 읽은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蜚揚)》은 그 니힐한 분위기로 젊은 나를 매료시켰는데, 내 문학의 자양이 된 한 작가의 딸 쓰시마 유코가 청춘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우아하게 서 있었다.

나는 쓰시마 유코를 처음 알았지만 세계의 많은 작가들은 그녀에게 다가가 다자이 오사무의 딸이냐고 묻기도 하고, 다자이 오사무의 문학에 대해 말을 건넸다. 옆에서 그것을 보고 나

는 적잖이 놀랐다. 전후 세대의 일본작가 다자이 오사무가 그토록 널리 알려져 있다니. 그것은 번역 등으로 문학과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려온 일본의 성과요, 국력이 아닐까. 그러기에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었고, 1996년에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최한 '아베 고보 국제 심포지엄'에는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아베 고보 연구자와 번역가 및 관계자 100여 명이 모였던 것이다.

### 한국문학도 세계의 팬 가질 날 기대

현대에선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듯하지만 진정한 삶의 질은 문화에서 나오고 한 국가의 저력도 문화라는 지층의 두께에 비례한다. 정신의 식수라 할 수 있는 문화, 그 문화의 대표요, 상징으로 당연히 책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래 성경을 위시하여 수많은 서적이 발간되고 이로 인한 지식의 엄청난 확산은 과학문명의 발달과 진보를 가져왔으니 말이다.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한국이 올해 주빈국을 맡게 되었다. 국가 차원의 문화축제라 할 수 있지만 도서전에 참가하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한국 작가들은 3월부터 독일 각지에서 낭독회를 가졌는데 나는 6월에 합류했다. 슈투트가르트의 낭독회엔 겨우 10여 명의 독일 관객이 참여하여 약간 실망했지만, 이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중요한 것은 관객수가 아니라 질이라고 만족했다. 레겐스부르크에선 60여 명의 관중이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즐겁게 했는데, 겨우 아기 걸음으로 한국문학을 알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문학도 세계의 팬을 가질 날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다.

## 경제와 물질보다 '문화'가 있는 나라 존중받아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한국문학과 우리 문화의 독자성, 그 변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아시아 하면 외국 인들은 경제강국이면서 고유한 문명세계를 가진 일본이나 유장한 전통문화의 중국을 떠올리고, 한국은 주변국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분단과 군부독재 등으로 세계 정치뉴스 한 모퉁이에 오르내렸지만 사실 한국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올림픽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어엿한 정보기술강국으로 자리잡았으며, 2002년 월드컵 때는 붉은 물결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이번 주변국 행사를 통해서 정치·경제의 이미지보다는 문화의 나라로 자리잡고, 2천 년 역사의 맥과 저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네 팔인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오른다. 진지한 인상의 네팔인 관료는 내게 직업을 묻고 나자 자신은 루션을 존경하며 네팔 시인들은 하이쿠의 영향으로 하이쿠 식으로 시를 쓴다고 알려주었다. 힌두교 나라인 네팔의 시인들이 일본의 하이쿠 식으로 시를 쓴다니 그 문화의 전파에 놀라웠고 하이쿠가 네팔에까지 번역되었다는 것에 다시 놀랐다.

그 네팔인 같은 외국의 독서자들이 한국작가 홍명희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날이 언제 올까. 언젠가 소르본느대학에서 '박경리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는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를 부러워할지언정 존경하지는 않는다. 나라도 문화가 있어야 존중받는다. 이탈리아 칼비노의 《반쯤가리 자작》이 한국어 출판되기 훨씬 전에 태국어 번역된 것을 알고 '태국이 후진국이 아니구나' 생각한 적이 있지만 거지가 득시글한 켈카타의 대학 주변에 동양 최대의 수백여 개 서점이 포장마차처럼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인도의 지적 전통이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구나' 하고 다시금 경탄했다.

###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변국, '문화국' 자신감 갖는 계기되길

매년 110여 개 나라에서 참가하며 전 세계 도서 저작권의 25퍼센트가 거래된다는 세계 최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문화교류의 장이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800만 부 이상 팔렸고, 세계 7대 출판강국인 한국이 주변국으로 행사를 치르고 문화국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도서전을 계기로 문학번역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의 좋은 소설들이 세계로 수출되어 전 지구인들과 교감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번역도 노벨상을 겨냥하여 특정작가 위주로 밀거나 유행처럼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몰리기보다,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묻혀 있는 역작들을 발굴하여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문학의 진정성에 한층 가깝다.

지난해 어느 영화에 1,000만 명의 관객이 몰렸다고 하고, 지금 상영되는 무슨 영화엔 몇백만 명의 관객이 들었다고 한



다. 대중들이 한층 감각적인 시각매체로 쏠리니 대형서점마저 썰렁한데, 책이 안 팔리는 시대라 작가가 3D 직종이 되었다고 자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인들이 배출되고 소설이 출판되는 것은 한 선배의 말처럼 문학이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근원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문학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책이 존재하는 이유다. 변질될지는 몰라도 지구가 있는 한 지속될 활자들의 원유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지식의 전위대로서 지구인들을 일깨울 것이고, 근원의 발굴자로서 작가들을 포용하고 정신의 불멸을 지켜주는 것 같다. **\*\*\***

사진 | 2004 프랑크푸르트도서전 · 프랑크푸르트 = 신동섭 기자

- 이 글을 쓴 강석경은 1974년 <근책>, <오픈 게임>으로 월간 <문학사상> 제1회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중편 <숲속의 방>으로 제6회 녹원문학상과 제10회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밤과 요람> <청색지대> <세상의 별은 다 화사에 뜬다> <경주 산책> 등이 있다.